

2012년과 2018년의 ‘출산’키워드 분석

제출일	2022.06.01	
팀원	2017140013	권성준
	2018161010	김국진
	2018140013	김동권
	2017161127	조유현

목차

1. 서론

- (1) 주제 선정 배경과 이유
- (2) 분석 데이터 및 분석 도구

2. 본론

- (1) 네트워크 구성 개요
- (2) 출산
 - 1) 2012년 ‘출산’ 군집 분석
 - 2) 2018년 ‘출산’ 군집 분석
 - 3) 2012년과 2018년의 출산 비교 분석 결론
- (3) 여성
 - 1) 2012년 ‘여성’관련 군집 분석
 - 2) 2018년 ‘여성’관련 군집 분석
 - 3) 2012년과 2018년의 ‘여성’ 비교 분석 결론
- (4) 가정
 - 1) 2012년 ‘가정’관련 군집 분석
 - 2) 2018년 ‘가정’관련 군집 분석
 - 3) 2012년과 2018년의 ‘가정’ 비교 분석 결론
- (5) 정책과 제도
 - 1) 2012년 ‘정책과 제도’관련 군집 분석
 - 2) 2018년 ‘정책과 제도’관련 군집 분석
 - 3) 2012년과 2018년의 ‘정책과 제도’ 비교 분석 결론

3. 결론

- (1) 최종 결론
- (2) 고찰

1.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과 이유



- 2020년에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2030세대 16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혼 의향을 가진 사람이 약 54%를 차지하였고, 향후 자녀 출산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80.9%를 차지하고, 아예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37.8%였으며, 여성은 45.4%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하며 남성(25%)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2)



- 한국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⁴⁾이지만 2021년의 합계 출산율⁵⁾은 0.81명을 기록하며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 출산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2018년과 2010년대 중 출산율 재하락 시작을 보인 2012년의 출산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2023년 이후의 출산율 상승을 위해 어떠한 노력 또는 제도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 이미지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10531n02177?hc=933373&mal=01>

2) 박지윤, 웨딩TV, '[통계]2030세대 2명 중 1명은 "결혼할 생각 없다!"', 2020.10

3) 이미지 출처 : 통계청

4)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terminology.do>

5) 합계출산율 : 15세부터 49세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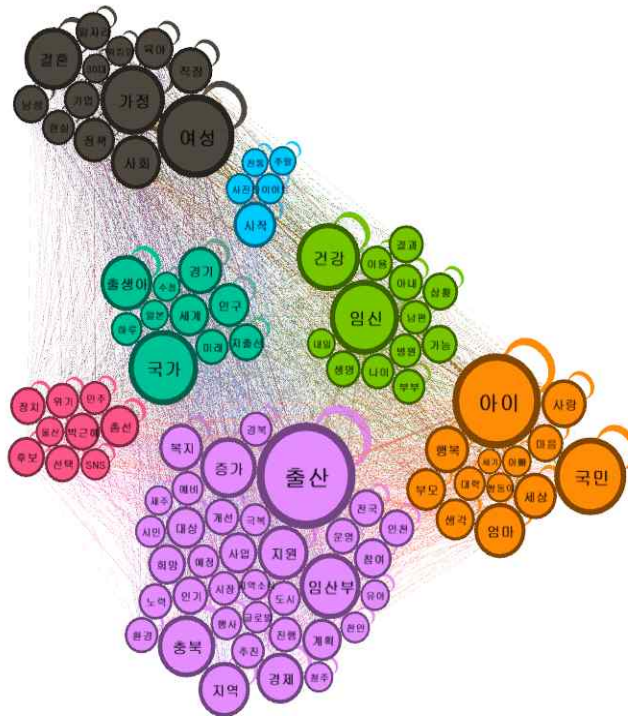
(2) 분석 데이터 및 분석 도구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에서 2012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출산’이 언급된 기사 데이터 ~건, ~건과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출산’이 언급된 기사 데이터 ~건, 12990건의 기사들을 활용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에서 키워드 열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였으며, 팀원 합의하에 이음동의어와 제외 단어 처리를 완료한 데이터 파일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Gephi 0.9.2를 사용하였다.
- 2018년 상반기 데이터는 129488개의 노드, 1037921개의 edges 가 도출되었다. Degree range 는 150개 내외로 1100~ 11021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127개의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그 후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6개의 군집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 2018년 하반기의 데이터의 경우 총 127041개의 노드가 도출되었다. Degree range는 분석을 진행할 노드 수가 150개 내외가 될 수 있게 1100에서 10454로 설정하였고, Modularity 은 1.0으로 진행하였다가 한 군집에 속하는 노드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0.8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139개의 노드와 7705개의 엣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도출된 총 20개의 군집 중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8개의 군집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 2012년도 상반기 데이터는 기사 수 10,879건이 나왔고 이 기사를 기반으로 gephi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진행할 노드 수가 150개 내외로 설정하기 위해서 Degree를 1000~8006으로 설정하고 노드 수가 많은 군집은 Modularity : 0.8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 2012년 하반기의 데이터의 경우 총 10474개의 노드가 도출되었다. Degree range는 분석을 진행할 노드 수가 150개 내외가 될 수 있게 1000에서 9864로 설정하였고,
- Modularity는 1.0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104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도출된 총 13개의 군집 중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5개의 군집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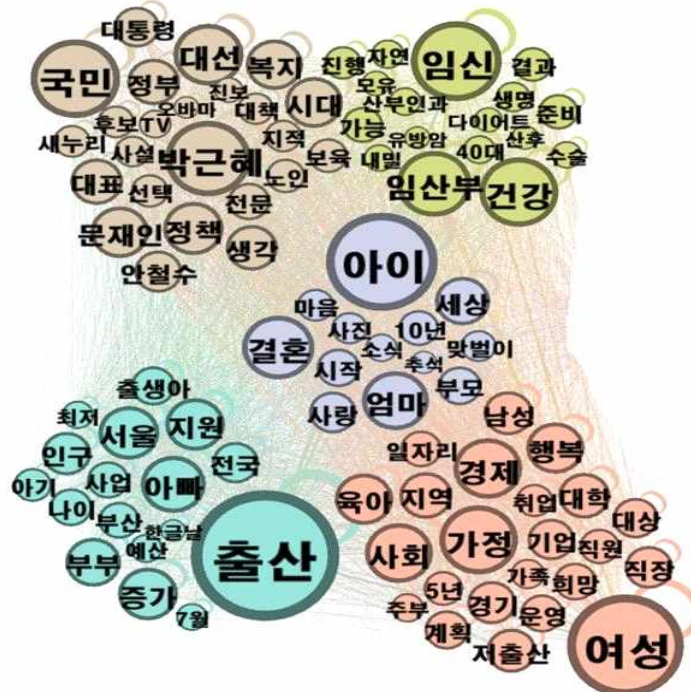
2. 본론

(1) 네트워크 구성 개요

-1. 2012년 네트워크 구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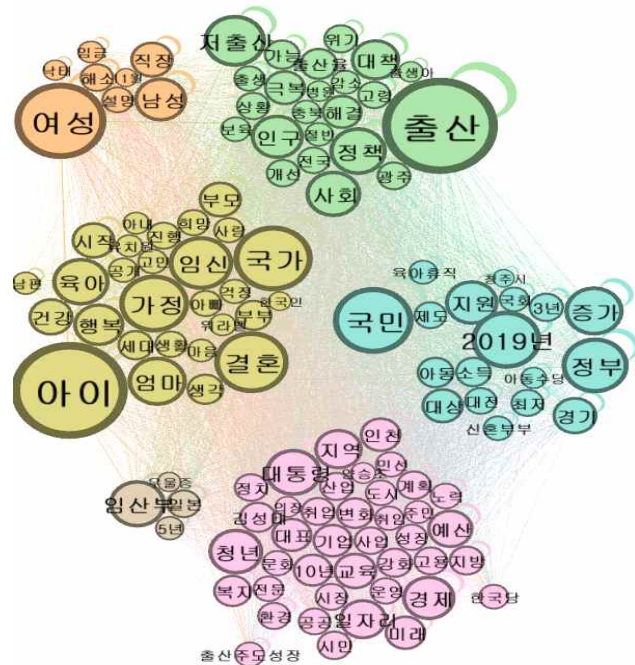


<그림 3 . 2021년 상반기 출산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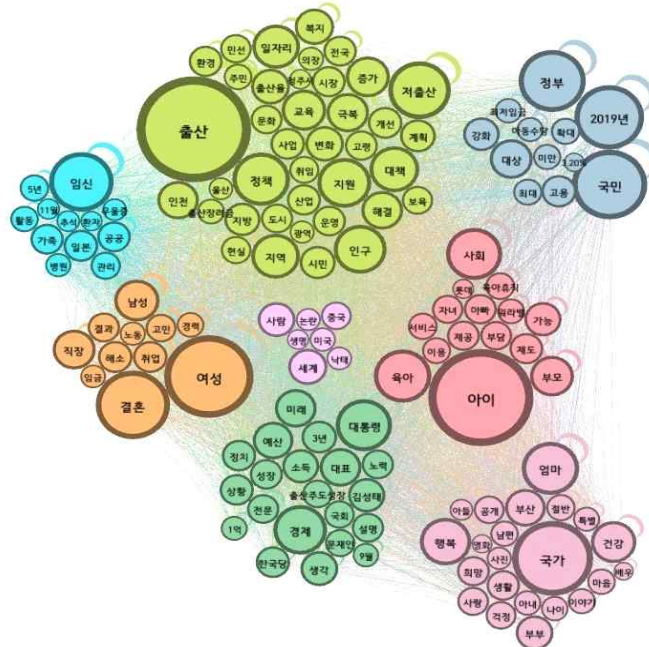


<그림 4 . 2012년 하반기 출산 네트워크>

-2. 2018년 네트워크 구성 개요



<그림 5 . 2018년 상반기 출산 네트워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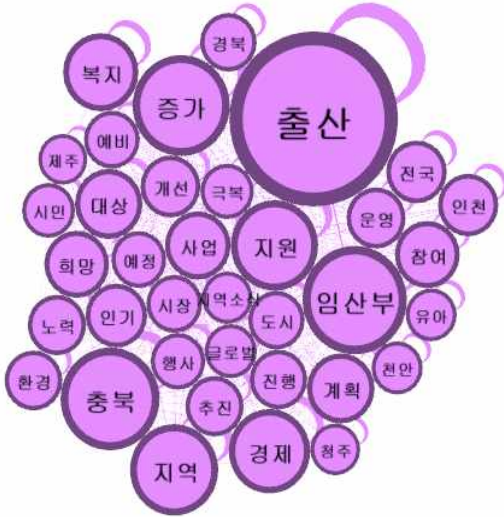


<그림 6 . 2018년 하반기 전체 네트워크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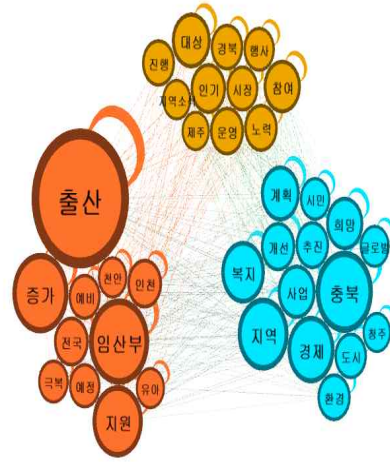
- 2012년 상,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이렇게 총 4개의 분석 보고서를 각 팀원 당 하나씩 완성하였고, 4개의 모든 보고서의 내용을 출산, 여성, 가정, 정책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회의를 통해 출산, 여성, 가정, 정책을 카테고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보고서의 진행 또한 이와 같이 진행된다.

(2) 출산

1) 2012년 ‘출산’ 군집 분석



<그림 7 . 2012년 상반기 출산 관련 군집>



<그림 8 . 2021년 상반기 출산 관련 군집_계층적 분석>



<그림 9 . 2012년 하반기 출산 관련 군집>

- 천안'지역과 '인천'지역에 임산부에게 출산을 위해 '지원'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에비산모 풍진항체검사	에비산모	에비산모 확인서류 지참 신청 (문의: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521-5937)
모유수유교육	임신부	첫째, 셋째주 목요일 오전 교육 (문의: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521-5937)
신생아 출생 축하용품	첫째 아 상	출생신고시 출생축하용품 지급 (문의: 여성가족과 연구정책팀 ☎ 521-5373)
천안시직장맘 지원센터운영	직장맘	일·가정 양립사업, 임신·출산·육아사업 지원 (문의: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 904-3550)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임신부	지원금: 60만원(다태아는 100만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임신부	철분제(임신16주 이후부터 분만전까지·최대 5개월) 엽산제(임신12주 이내까지) (문의: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521-5937)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 인천시+Mom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인천시 주민등록 출생자
지원내용: + Mom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계좌입금)
신청방법: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출산·임양 축하금
지원대상: 사구 출생·입양자
지원내용: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사구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500만원 지원(사구·지역화폐·현금)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대상: 사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다태산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사구·지역화폐·현금)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후 육아유지급여지급신청통지서 등첨서본 필요(사정
신청기간: 육아유지사업일 이후 1개월부터 출생일 이후 12개월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 '전국'적으로 '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증가'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 '지원'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출산에 대해 예비를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제주'지역과 '경북'지역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행사'를 '운영',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3 .경북대표지역인 대구에서의 출산의 날 기념행사>



<그림 14 . 제주도에서의 결혼, 출산기념 행사>

- 6) 이미지 출처 : 천안시청
7) 이미지 출처 : 인천서구청
8) 이미지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 이미지 출처 : 인구복지협회
10) 이미지 출처 : 제주환경일보

- 충북(780), 지역(4470), 경제(2733), 복지(3284) 노드가 높은 군집으로 ‘충북’ 지역에 대표적인 곳인 ‘청주’ 지역에 ‘경제’적인 ‘복지’, ‘사업’이 ‘계획’ 또는 ‘추진’ 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사업 I 사업목적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의 예방접종율을 퇴치수준(95%이상)으로 향상하고자 함	
I 사업내용 만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접입부를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 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I 주요내용 • 사업시행 시기 : 2009년 3월부터 지속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①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 A형간염 : 2012.1.1. 이후 출생자 - Hib, 폐렴구균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고위험군 소아는 59개월 이상에서도 지원) - HPV :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지원백신(17종) : BCG(파결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O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홍역), 수두,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유행성 이하선염(독과불활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BCG(경미용), 로타바이러스(로타릭스, 로타텍) 등의 예방접종은 전액 본인 부담 ② 위탁의료기관 찾기: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s://nip.kdca.go.kr ¹¹⁾	

<그림 15 .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주
 서원구 보건소에서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 '서울'에서 출산장려금 등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 출산장려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강남구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강동구	20만원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강북구	-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5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거주
강서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관악구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광진구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구로구	-	30만원	60만원	200만원	2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금천구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노원구	-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거주
도봉구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동대문구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동작구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마포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서대문구	1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서로구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성동구	-	2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성북구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송파구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양천구	-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양동포구	10만원	5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윤성구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은평구	10만원	35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종로구	3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0개월 이상 거주
중구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종말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 출산으로 인해 많은 고충과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국가는 출산에 대한 복지와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 천안 지역과 인천 지역은 임신부의 출산을 위해 많은 복지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증가시키고, 그 예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에 대해 예비를 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국가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1) 출처 : 청주 서원구 보건소

12) 출처 : 서울시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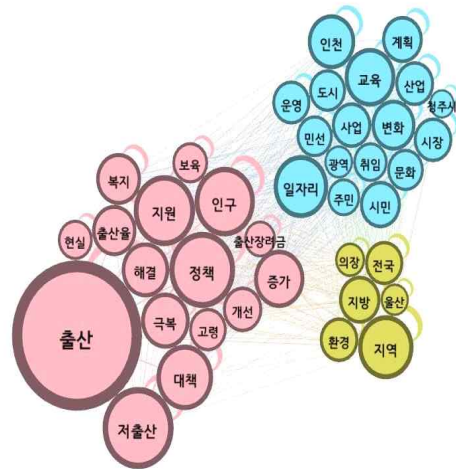
2) 2018년 ‘출산’ 군집 분석



<그림 17 . 2018년 상반기 출산 관련 군집>



<그림 18 . 2018년 하반기 출산 관련 군집>



<그림 19 . 2018년 하반기 출산 관련 군집-계층적 분석>

-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3)

13) 조종도, 백세시대, ‘통계청 ’2019고령자 통계’발표...노인 10명 중 3명은 취업’, 2019.10

- ‘저출산’ 문제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많은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료비 ‘지원’ 증가, 1세 미만 아동 및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률을 2019년부터 절반가량 감소시키기로 한 것이 확인되었다.



14)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에게 ‘출산장려금15)’을 ‘지원’해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 ‘저출산’으로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출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7. 주요 정책방안

□ 기본방향

- 결혼·임신·출산·보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증대
- 일·가정 양립 및 부부의 공동육아 촉진을 통한 건강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 양적 및 질적 공동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차원에서의 육아서비스 제공

16)

- ‘인천’을 포함한 ‘광역시’들과 ‘청주시’ 등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뽑은 ‘민선’ ‘시장’이 ‘일자리’ ‘사업’과 ‘교육’ ‘산업’에 많은 ‘변화’를 ‘계획’ 및 ‘운영’하며 ‘출산’ 및 육아에 적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여성‘병원’은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다. 여성‘병원’은 다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산’하여 ‘출생아’가 ‘출생’했다하더라도, ‘출생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가 함께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14) 기획재정부

15)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으로도 불리며, 출산을 앞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6) 박승규,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속가능한 울산형 인구발전방안’, 2019, 12페이지

3) 2012년과 2018년의 출산 비교 분석 결론

- 2012년에는 저출산만이 문제로 도출되었다면 2018년에는 고령화 문제도 함께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에 여러 정책과 제도로 극복될 줄 알았던 저출산 문제가 2018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고령화 문제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 2012년에 출산장려금, 출산기념 행사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 했다면, 2018년에는 2012년에 행해졌던 제도와 행사에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추가해서 운영 및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여성

1) 2012년 '여성'관련 군집 분석



<그림 23 . 2012년 상반기 여성 관련 군집1>



<그림 24 . 2012년 상반기 여성 관련 군집2>



<그림 25 . 2012년 하반기 여성 관련 군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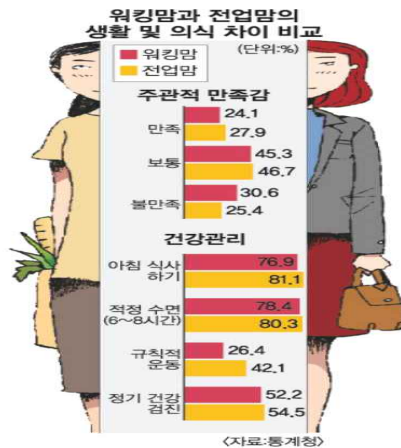
<그림 26 . 2012년 하반기 여성 관련 군집2>

- '임신'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부부'가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 '임신'의 '결과'로서 '건강'이 악화하는데, 때문에 '산후'조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40대' 이상의 산모는 '자연'분만이 힘들고, '수술'을 통해 출산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아내’와 ‘남편’ 즉 ‘부부’의 동의에 따라 17)‘내밀’부부가 ‘병원’에 찾아와 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임신부가 임신 후유증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 결혼을 한 30대 직장인 여성들, 즉 워킹맘들이 육아와 가정에 부담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18)

<그림 27. 워킹맘과 전업맘의 생활 및 의식 차이 비교>

- 결혼을 한 30대 직장인 여성들을 위하여, 사회, 기업에서 정책마련에 힘을 써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하세요!

• 모집: 7월20일(월) ~ 8월5일(수) 18:00
• 대상: 만 0~12세 자녀를 둔 경기도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기대교육	3시간, 5회, 부모 발달 특성 및 상호 이해 외
운영멘토링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멘토링
활동비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지급
운영지원	동아리별 활동 및 관련 자료 지원 외
우수동아리 시상	총 3회의 공유회 중 우수 동아리 시상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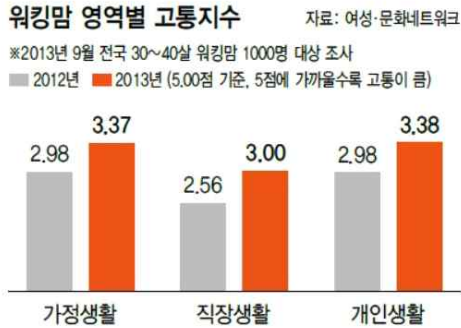
19)

17) 내밀부부 : 익명성을 보장받는 부부

18) 출처 : 통계청

19) 출처 : 경기도 지자체

- 30대 여성들이 일자리 문제로 힘들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9 . 워킹맘 영역별 고통지수>

워킹맘의 퇴사 고민경험 유무

자료: KB금융경영연구소



20)

퇴사 고민 시기의 대처 방법



21)

<그림 30 . 워킹맘의 일자리에 대한 이슈>

- 기업에서 엄마 '일자리' 정책을 완화를 통해 '주부'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사회'에선 '여성'들에 '육아'의 '행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결혼을 한 30대 여성들, 즉 워킹맘들은 육아와 가정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위하여 사회, 기업에서 정책마련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

▶ 임신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부부가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임신의 결과로서 건강이 악화하는데, 때문에 산후조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40대' 이상의 산모는 '자연'분만이 힘들고, '수술'을 통해 출산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아내와 남편 즉 부부의 동의에 따라 '내밀'부부가 '병원'에 찾아와 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산부가 임신 후유증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20) 출처 : 여성문화네트워크

21) 출처 : KB금융경영연구소

22) 출처 : 고용노동부

2) 2018년 '여성'관련 군집 분석



<그림 32 . 2018년 상반기 여성 관련 군집1>

<그림 33 . 2018년 상반기 여성 관련 군집2>



<그림 34 . 2018년 하반기 여성 관련 군집1>

<그림 35 . 2018년 하반기 여성 관련 군집2>

<그림 36 . 2018년 하반기 여성 관련 군집3>

- '여성'이 '결혼'에 의향이 없는 이유 중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1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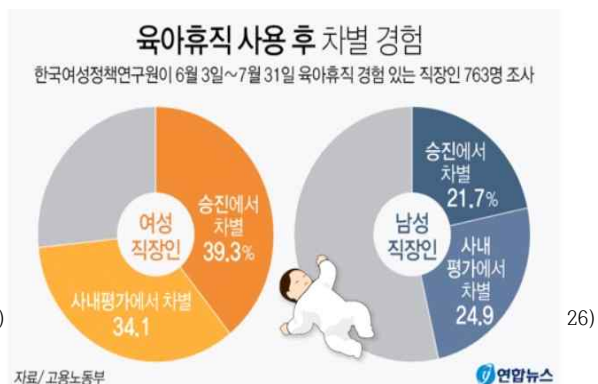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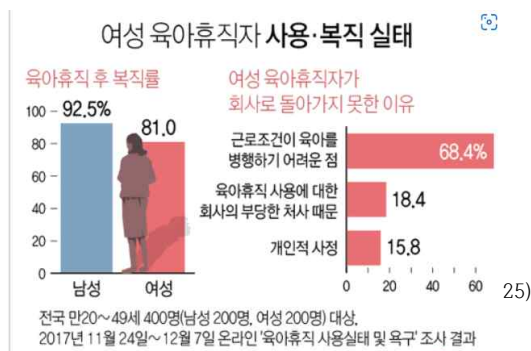
23)

23) 백승호, 허프포스트코리아, '여성과 남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꽤 다르다', 2018.06

-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15세부터 54세까지의 기혼여성 900만 5천명 중 '경력'단절 여성이 184만 7천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 '경력'단절 사유 1위는 '결혼'이었고, 뒤이어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이 사유로 도출되었다.



- '직장'내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 등의 차별대우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직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해 받는 휴가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해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된다.



-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 통계청

25) 인구보건복지협회 - 여성 육아휴직자 사용·복직 실태

26) 고용노동부, 육아 휴직 사용 후 차별 경험

나는 왜 인공임신중절을 결심했나?

단위: %, 복수 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 우려	33.4
고용 불안정, 적은 소득 등으로 양육 어려움	32.9
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정을 위해	31.2
아이 아버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 (이혼, 별거, 이별 등)	17.8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원치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 때문에	11.3
나의 건강 때문에	9.1
나 또는 상대의 부모가 낙태를 원해서	6.5
성폭행에 의한 임신	0.9

27)

-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등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태아도 하나의 '사람'이자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에 대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018년 '미국'의 50개 주 중 단 8개의 주만을 제외하고 모든 주고 18주 이상의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임신주수는 환자의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계산함.
* 뉴욕주의 새로운 법률은 체외생존가능성의 한계점인 24주를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규제를 느슨하게 만들.
* 버몬트주는 2019년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을 통과시켰고, 주수를 기준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

28)

- '중국'은 산아제한의 전면적 개시 시기인 1980년과 한 자녀 갖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1990년에 '낙태'율이 증가하였다. 29)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임산부'가 출산 후 최대 '5년'까지 산후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파악된다. 30)

- '일본'의 '공공'병원'에서 '임신 및 출산을 진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활동'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의 이유

2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2019.06

29) 이경희,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제26호, '중국의 산아제한과 낙태', 2004.12

30) 김율리,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정신신체의학 제15권 제1호, '임신 및 산후 우울증', 2007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은 이전에 초저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이 선택한 방법으로 확인되었다.³¹⁾



32)

▶ 출산에 직장내 여성남성 차별대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이 증가하였다.

31) 성평등 강화정책

32) 통계청, 후생노동성

3) 2012년과 2018년의 ‘여성’ 비교 분석 결론

1. 2012년에는 여성의 출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출산 후 일을 진행하는 워킹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018년에는 비출산을 넘어 비혼의 의향을 보이는 젊은 세대들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고, 워킹맘이 문제가 아닌 출산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2012년에는 출산 후 여성의 신체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였다면, 2018년에는 여성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경력 단절 문제와 직장 내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육아 휴직 사용 시 부담감 차이 등의 차별대우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3. 경력 단절, 직장 내 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2012년에는 없었던 여성의 낙태에 대한 고민이 2018년에는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가정

1) 2012년 '가정'관련 군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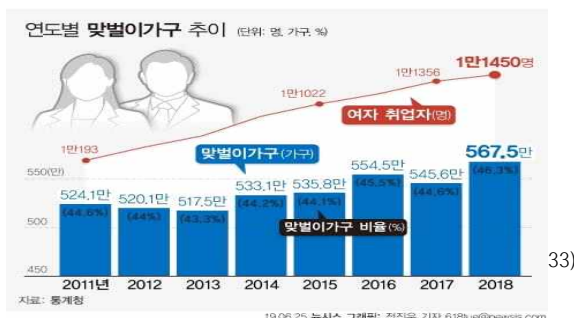


<그림 44 . 2012년 상반기 가정 관련 군집>



<그림 45. 2012년 하반기 가정 관련 군집>

- 본 군집을 해석해본 결과 출산을 한 후에 '엄마', '아빠', 즉 부모가 '아이'에 대한 '사랑'과 '행복'에 온 정성을 다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아이'에게 '사랑'을 주며 행복한 육아를 할수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쌍둥이 출산으로 인해 부모의 대학 등록금의 부담감이 심해졌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 '맞벌이' '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육아를 '시작'하는 부담감이 매년 커진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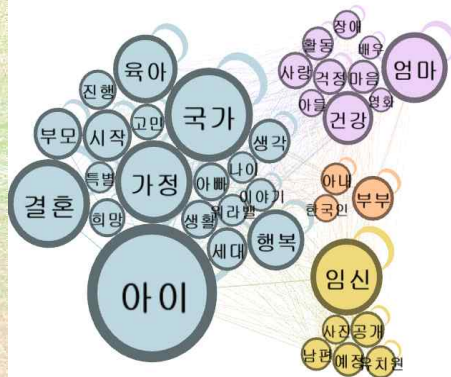
-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출산을 한 후에 부모가 아이에 대한 사랑과 행복에 온 정성을 다 하고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많이 생기고 있다. 즉 맞벌이 부부가 생김으로써 육아에 부담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모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2) 2018년 ‘가정’관련 군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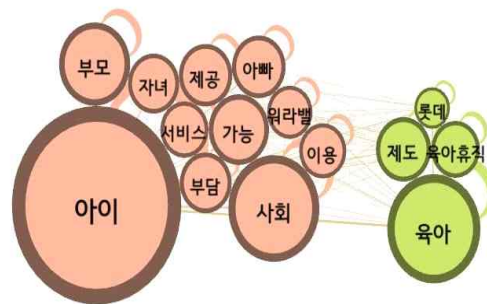
<그림 47 . 2018년 상반기 가정 관련 군집>



<그림 48 . 2018년 상반기 가정 관련
군집-계층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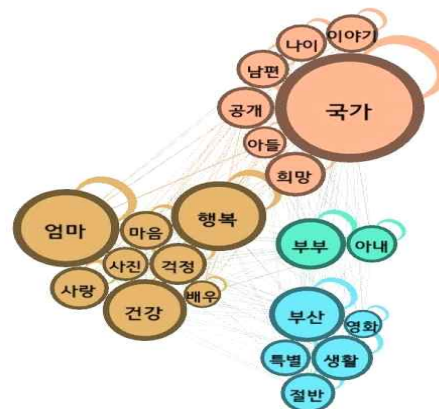
<그림 49 . 2018년 하반기 가정 관련 군집1> 석>



<그림 50 . 2018년 하반기 가정 관련 군집1_계층적 분석>



<그림 51 . 2018년 하반기 가정 관련 군집2>



<그림 52. 2018년 하반기 가정 관련 군집2_계층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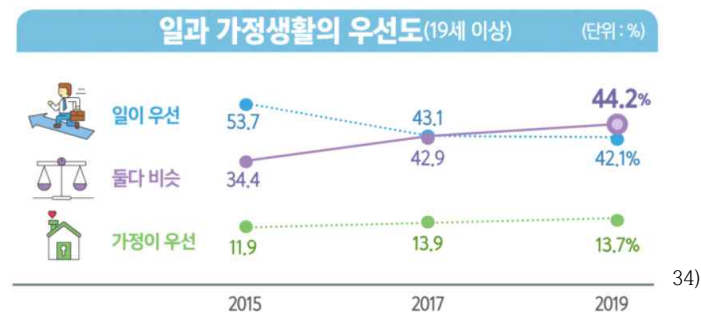
- 한 ‘배우’가 방송에서 ‘남편’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을 ‘공개’하여 그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되고, 출산 이후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함께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 또한, 가족을 ‘공개’하면서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희망’을 함께 보여준 것으로 파악된다.

- 2018년 가을에 개최된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10년:대만>이라는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산 이후 ‘부모’가 되어 본격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육아’가 ‘시작’되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과 함께 ‘아이’(‘자녀’)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워라벨’)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 증가함<그림1>, 즉, 아이, 가정생활을 생각하는 ‘아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아빠’의 육아 참여 시간을 늘리기 위해 ‘사회’에서 ‘워라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롯데’ 등의 기업에서 출산한 직원들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등의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롯데’는 2017년 1월, 업계 최초로 전 계열사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2018년 6월 말에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직원의 수가 2000명을 돌파했다.



- 이를 통해 출산은 ‘아내’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닌 ‘부부’의 공동 책임이 필요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 부모는 아이의 행복을 바라지만, 요즘 아이(자녀)들을 ‘무민’세대³⁶⁾’ 라고 일컬을 만큼 경쟁과 치열함에 지쳐있어 ‘행복’ 지수가 낮으며 이로 인해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결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민‘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희망’을 갖게 하자는 것으로 보여진다.

▶ 과거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35) 롯데 공식블로그, <https://blog.lotte.co.kr/34218>

36) 무민(無 Mean) 세대: 경쟁사회에 지친 요즘 젊은이를 일컫는 신조어

3) 2012년과 2018년의 '가정' 비교 분석 결론

1. 2012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아이의 존재의 행복에 대한 언급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보다는 이러한 출산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018년에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2. 2012년에는 맞벌이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화제였다면 2018년에는 출산율이 매우 줄어 아이가 없는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대한 부담 관련 이슈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3. 2012년과 2018년 모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4. 2018년에는 2012년에는 없던 아빠의 가정 내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해 기업에서 육아 휴직 등의 제도를 운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전체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아내 홀로 감당해야한다는 면이 컸던 2012년에 비해 2018년에는 출산과 육아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5) 정책과 제도

1) 2012년 '정책과 제도'관련 군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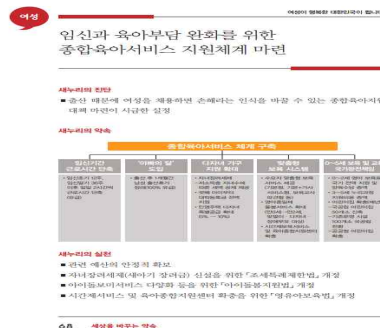


<그림 56 . 2012년 상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1> <그림 57 . 2012년 상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2>



<그림 58 . 2012년 하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

- 18대 대선 기간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공약에 임신과 육아부담에 서비스 체계마련의 공약으로 여성들의 지지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9 . 박근혜 후보의 중앙공약>

- 2012년 대선 기간에 SNS의 활성화로 인해 박근혜 후보가 SNS를 통해 대선에 힘을 쏟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문재인’ ‘후보’는 ‘아이’가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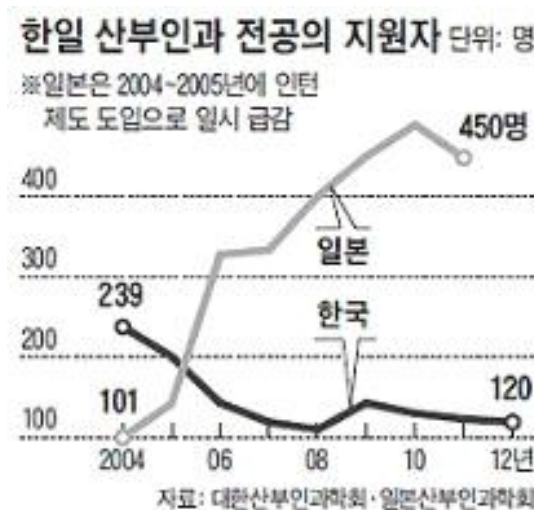
- ‘대선’ ‘후보’는 ‘대표’로서 아래 그림38와와 같은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교육·복지 공약 비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과서 완결 학습체제' 통한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 방과 후 프로그램 무료제공, 무료 돌봄 서비스 등 온종일 학교 운영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필기시험 없애고 자유학기제로 운영 -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보, 중·고교 1인 1스포츠포드 도입 - 일제고사 초등학교 폐지, 중·고교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및 학제 개편 - 일제 후 사교육 금지, 연행별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 기준 마련,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특목고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 고교등급제 불허 및 고교학점제 정착 - 국가교육위 설립, 중·장기적으로 수능 자격 고사화, 내신 중심 선발 - 일제고사 표집조사로 전환, 교사별 평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 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월 20만원 노인연금 도입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임주인이 주택담보대출 후 세입자가 이자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환자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기준(20%), 이용 아동기준(40%) 확충 - 기초노령연금 2017년까지 2배 인상 -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용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

38)

- 본 군집을 분석을 해본 결과 ‘국가’가 미래의 저출산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본은 2012년도 이전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증을 하면서 인공 수정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9)

▶ 출산으로 인해 많은 고충과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국가는 출산에 대한 복지와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 천안 지역과 인천 지역은 임신부의 출산을 위해 많은 복지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증가시키고, 그 예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

37) 출처 : 새누리당

38) 출처 : 새누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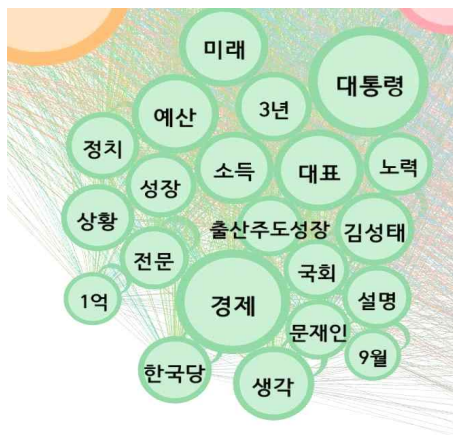
39) 출처 : 대한산부인과학회, 일본산부인과학회

에 대해 예비를 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국가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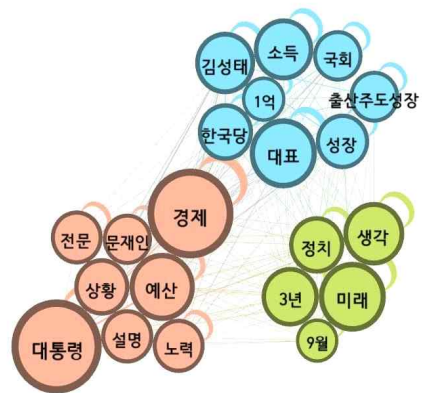
▶ 18대 대선 기간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공약에 임신과 육아부담에 서비스 체계마련의 공약으로 여성들의 지지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아이가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는 중심으로 대선에 출마하였고 각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각 당의 대표로써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그림 66 . 2018년 상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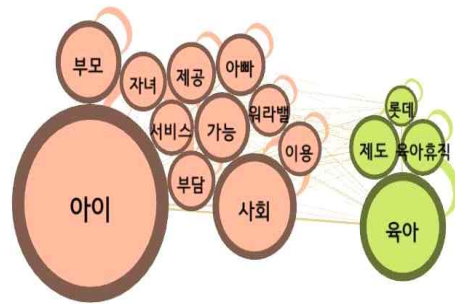
<그림 67 . 2018년 하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1>



<그림 68 . 2018년 하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1_계층적 분석>



<그림 69 . 2018년 하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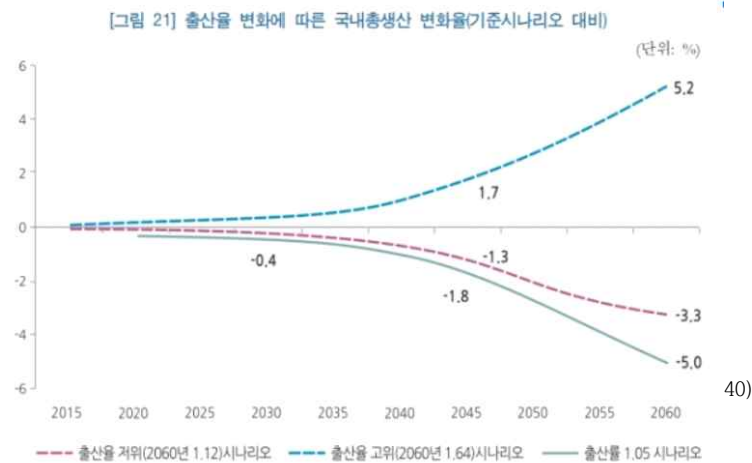
<그림 70 .2018년 하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2_계층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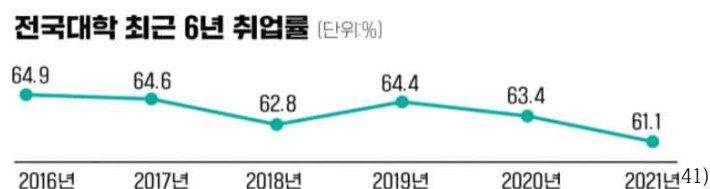
<그림 71 . 2018년 하반기 정책과 제도 관련 군집3>

- ‘양승조’ 는 2018.06.13 지방선거의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였으며 정년 연장과 출산을 해결 관련 공약을 내세워 노드가 출현 한 것으로 파악된다.
- ‘민선’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지방’에서 선출한 ‘민선’ 의원, ‘시장’ 에 의해 ‘지역’ 단위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18.06.13 지방선거에서 ‘취임’ 된 의원에 의해 각 ‘지역’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 다수 언급되었음으로 보여진다.
- ‘울산’시, ‘인천’ 시는 저조한 출산율이 대응하여 2018년 상반기에 출산 장려금을 대폭 지원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각기 다른 가정‘환경’에서도 모두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가정‘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강화’ 한 것으로 보인다.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비례‘대표’, ‘정치’인이 ‘기업’에 출산 휴가, 워라벨 등 가정과 관련된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 저출산과 ‘경제’의 영향(아래 그림)에 따라 관련 경제 정책 또한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



-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이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을 ‘국회’에 제안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였다.
- 앞서 언급했듯, 요즘 아이(자녀)들을 ‘무민‘세대’’ 라고 일컬을 만큼 저조한 ‘취업’률과 서로 경쟁, 치열함에 지쳐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필수로 ‘고용’하는 법안을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
- 이에 따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는 ‘노력’ 혹은, ‘청년’ 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된다.



- ‘10년’ 노드는 앞서 언급했듯, 저조한 출산율을 대비하여 ‘복지’ 정책으로 ‘10년’간 출산 장

40) 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 저출산의원인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41) 교육부-대학알리미에서 실시한 전국 대졸 취업률

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파악된다.

- ‘대통령’이 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경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출산 관련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 ‘9월’에 ‘3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여 출산에 관한 ‘정치’적 요소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018년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에 대비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출산율을 ‘증가’ 시키고 ‘국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 통과 시켰음으로 파악된다.
- 2018년 9월 ‘아동수당’법⁴²⁾이 시행되었다.



- ‘소득’, 임금에 따라 ‘아동수당’을 차등 ‘지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출산에 부담이 가는 ‘신혼부부’가 주 ‘지원’ 대상임으로 추정된다.
- 청주시, 대전, 경기 지역이 특히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지자체로 추정된다.
- 2018년 2인 이상,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 ‘대상’의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아동수당’법의 ‘대상’이 ‘2019년’ 9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국민’들의 출산 후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고용’에 대한 법을

42) 아동수당법 :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

43) 부평구청 공식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withbupyeong&logNo=221441742333>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롯데’ 등의 기업에서 출산한 직원들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등의 여러 ‘제도’를 운영하
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롯데’는 2017년 1월, 업계 최초로 전 계열사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2018년 6월 말에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직원의 수가 2000명을 돌파했다.



▶ 많은 정치인들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3) 2012년과 2018년의 '정책과 제도' 비교 분석 결론

1. 2012년에 18대 대선이 치러지면서 각 후보들이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018년에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공약들이었다고 판단된다.
2.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012년에 제안했던 제도들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들을 위주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결론

(1) 최종 결론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여러 지역에서 복지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그에 맞는 환경적 조건 추가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병원 부족에 대한 문제나, 내밀부부의 상담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고, 기업에서는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에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의 육아 부담이 고조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 재하락의 시작인 2012년 시행되었던 정책, 그리고 지금까지 별 소득 없이 꾸준히 감소하는 출산율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단순히 예산을 늘리거나,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도로는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출산율이 하락하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고찰

권성준 : 이 주제를 분석하기 전에는 저출산 문제에 큰 인식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분석하면서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문제점 등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였다. 특히 2012년 저출산의 하락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2018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까지 분석하면서 저출산의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국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장기적인 이슈를 급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국진 : 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이유로 인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생각보다 출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김동권 : 평소에 출산율이 낮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왔지만, 분석을 하며 더 가깝게 와닿았다. 처음에는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단순하게 여겼지만, 분석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저출산은 저출산 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고령화, 임금, 취업률, 등의 많은 문제점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력이 돋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진 부분에서, 결국은 정책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좋아 보였다.

조유현 : 주변인들 중 최근 비혼과 비출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된 계기가 그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분석을 통해 심리적 부담감도 그에 못지 않게 비혼과 비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분석의 결과를 보며 국가와 기업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굳이 꼽아보자면 2012년과 2018년, 두 해 사이에 극명한 대비가 없다는 점인 것 같다. 2012년이 아닌 출산율이 아주높았던 90년대 또는 그 이전을 2018년과 비교했으면 좀 더 극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점이다.